

## 윤석열 대통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4. 14일 오전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주재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을 활용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학습하고 진화함으로써 국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더 잘 알 수 있고, AI를 기반으로 더 스마트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AI와 소프트웨어, 디지털 분야의 인재를 키울 수 있고, 각 분야의 산업이 커나면서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추진 과정에서 산업의 엄청난 전후방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우리 산업의 지평과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선제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디지털플랫폼정부 자체가 수출의 효자산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미래 정부 모델이자 국가전략산업이라며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데이터와 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에 모여 공유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정부가 일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정부가 어떤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지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오늘 보고회는 지난해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7개월 만에 국민, 국회 인사, 언론인, 전문가, 기업인과 함께 갖는 뜻깊은 자리이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미래상이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알아서 맞춤형으로 배달하는 ‘혜택 알라미’” 등의 구체적인 핵심 사례들을 통해 제시됐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미래 변화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과제”,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안전 발표에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 부처간, 정부-민간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 초거대AI 대응 역량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보고회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및 민간위원 16명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전문가와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국회 인사, 언론계 인사,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 경기도, 경기도공공보건의료포럼 개최. 고령화 시대 보건의료 정책 논의



경기도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지난 12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제2차 경기도공공보건의료 포럼’을 열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 중심 공공보건 의료제도 및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도내 보건소장, 경기도의료원 담당자 등 약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1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선진국의 대응’, 2부 ‘제8기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주요 내용 발표’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일본의 재택의료와 재택 의료영상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선진 의료제도의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한 발제가 이뤄졌다.

‘일본의 재택의료와 재택 의료영상’의 발제를 맡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혜진 교수는 “일본의 재택형 의료영상 모델인 이신칸(医心館)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보건소 차원에서 바람직한 재택의료의 모습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선진 의료제도의 변화와 향후 과제’ 발제를 맡은 명지병원 이양준 이사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당연함에 묻리지 않는 혁신적인 헬스케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희영 단장은 “국내의 활발한 시도 차원의 도전을 통해 새로운 보건의료 체계에

관한 성공사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부에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한 ▲제8기 경기도지역보건의료계획 ▲2023년 경기도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주요 내용 발표가 이어졌다.

‘제8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소개한 임원자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도민 의견수렴, 민선 8기 도정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 형평성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라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비전으로 제시한 ‘더 고른 기회로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를 31개 시군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소개한 임기선 경기도 공공의료정책팀장은 “보건복지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반영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 시행계획을 만들었다”라며 “경기도의 필수 의료 제공 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공공보건 의료제도 기반 강화에 대한 경기도의 고민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검은백조(Black Swan)’였다면 고령화 시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만 모수를 찾기 어려운 ‘회색 코뿔소(Gray Rhino)’”라며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점을 고려하면 예방의료에 공공 및 민간, 지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혜영/기자

## 경북도, 과수 선진국과 글로벌 협력 박차!

고급 와인 주산지 루마니아와 가공품도 품종 육성 맞춘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과수 선진국인 루마니아, 튀르키예 해외 현지에서 경북의 주요 농산물인 포도 신품종 육성 및 건조감의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연구과제 협약 체결과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술원은 김홍수 연구개발국장을 비롯해 상주감연구소장, 포도육종연구자, 루마니아 포도연구소장, 튀르키예 중앙원예연구소장 등 관계자들과 국제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우수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토론했다.

2014년부터 과수 선진국인 루마니아와 공동연구를 시작해 우수자원 교환, 사과 등 수출 유망 신품종 육성 등의 성과를 이뤘으며, 양국은 긴밀하고 활발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는 전통과 맛을 자랑하는 세계 와인 주산지인 루마니아 콘스탄차시에 위치한 포도연구소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공용 포도 품종 육성에 주력하기 위해 현지 시험포장에서 육성 현황과 양조시설 등을 살펴보고, 발전된 결과 도출을 위한 인적-정보 교류 등을 활발히 할 것을 협의했다.

튀르키예 알모라 중앙원예연구소와는 건조감 공동연구과제 수행으로 유럽 소비자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시장조사에 주력해 경북의 건조감을 유럽에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 삽을 뜨게 됐다.

이 자리에서 유럽 시장에 적합한 건조감 제조 방법 및 유통 기술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토의했다. 앞으로 한국 건조감의 수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시범 수출 등을 추진하면 이슬람권 및 고급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루마니아, 튀르키예와는 10년간의 공동연구 역사를 통해 사과, 버섯 등 우수한 품종이 육성되는 성과를 이뤘고, 상호 간 신뢰가 단단히 구축돼 한 걸음 더 경북농업이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한-루마니아, 한-튀르키예 공동연구에서 좋은 결과를 달성해 과수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재배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 ‘봉담중흥S-클래스센트럴에듀’ 4월 14일 견본주택개관!

- ▶ 동화지구, 1·2지구, 효행지구(예정) 등 봉담 생활권 두루 누려 생활인프라 ‘우수’
- ▶ 전 연령대 인접한 윈스톱 학세권 입지...광역 교통망, 풍부한 녹지공간도 갖춰
- ▶ 전용 72·84·101㎡ 총 806세대 규모...봉담 내 5,000여 세대 중흥 브랜드 타운 조성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4월 14일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하리 176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 72·84·101㎡ 총 806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용 72㎡ 88세대 △전용 84㎡A 524세대 △전용 84㎡B 104세대 △전용 101㎡ 90세대 등이

다.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 분양일정은 4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5월 3일이며, 정당계약은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간 진행된다.

◆ 각종 도로망, 신분당선 연장(계획) 등 쾌속 교통망 기대...입주민 위한 특화설계도 적용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가 들어서는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에는 약 2,4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이 형성될 예정이다. 또 대규모 주거단지가 갖춰진 봉담1·2지구, 효행지구(예정), 화성태안3지구 등과도 가까이 생활권을 두루 공유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급되는 아파트를 포함해 ‘중흥S-클래스’는 화성시 봉담읍 일대에 약 5,000여 세대의 브랜드 타운을 조성하게 된다.

풍부한 생활인프라도 주목된다. 먼저 단지는 초·중·고교 모든 학교가 도보권에 자리한 윈스톱 학세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 바로 앞에는 와우고등학교가 위치하며, 와우초·중학교가 가까이 자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지 인근에 이마트가 위치하며, CGV·하나로마트 등 봉담1지구에 조성된 유통·문화시설 이용도 쉽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는 그린공원과 어린이공원도 조성될 계획이며 동화마을생태

공원, 봉담호수공원, 용건릉, 금당산 등도 가까이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된다.

광역 교통망도 눈길을 끈다.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 인근에는 봉담IC가 자리하고 있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봉담~송산) 및 과천봉담고속화도로를 통한 서울 접근성이 수월하다. 여기에 효행로, 43번 국도와의 가까워 수인선 이용이 편리하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신분당선 연장선 호매실~봉담 구간의 호재도 품고 있다.

‘중흥S-클래스’만의 특화설계도 주목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극대화하고, 4Bay 설계(일부)를 통해 실내 채광과 통풍을 높였다. 여기에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안심특화설계를 통해 입주민의 안전성도 보장했다. 또한 IoT 시스템을 도입해 세대 외부에서도 간편하

게 생활가전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다. 이밖에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들도 갖춰질 계획이다.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 견본주택은 경기도 수원시 고색동 43-4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6년 5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235-3300 양시현/기자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4월 14일(금), 대구광역시의회 환영 성명 발표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13일(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14일(금), 즉시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4일(금),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대구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글로벌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대구·경북의 숙원사업으로, 이번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신공항 건설을 위한 지금까지의 과정 중 이전부지 선정과

군위군 대구편입과 함께 가장 진일보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본격적인 추진동력이 마련된 만큼 중·남부권을 아우르는 거점공항이 될 수 있는 공항시설 규모의 확보와 접근교통망 건설, 배후 단지 조성, 종전부지 개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대구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기부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전부지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 사업전반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돼 민간사업자 선정 등 신공항 건설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 특위 박소영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대구·경북의 민·관·정이 합심해 한 목소리를 낸 성과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 시도민들과 소통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신공항 건설이라는 오랜 숙원사업이 또 한 걸음 나아갔다”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지역 시민 사회와 정치권, 언론 등 지역 여론과 역량을 총결집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부천 상동시장 '찾아가는 현장도의회' 실시... 현대화사업, 화재예방책 등 논의

이재영 의원 비롯 경기도·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부천시·부천소방서 관계자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3일 37년 역사의 전통시장인 '부천 상동시장'을 직접 방문해 상인들과 시설 현대화 추진, 화재예방 강화 등 실질적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의정활동으로 진행된 현장방문에는 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민주, 부천3)과 최홍락 경기도 소상공인과장, 조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임은분 부천시의회(더민주, 부천4), 이미숙 부천시 생활경제과장, 신희범 부천소방서장 등이 함께 했다.

상동시장은 부천시 석천로 일대 1만3,400여 m<sup>2</sup> 부지에 조성된 전통시장으로 1986년 개설된 이래 현재 156개 점포에 347명의 상인이 근무하고 있다.

이날 염 의장 등은 시장 시설 전반과 화재안전 설비를 점검하고, 상인회 회의실에서 조정경 회장, 함중국 수석부회장 등 시장 관계자들을 만나 민생현장의 고충과 건의를 경청했다.

상인회는 주요 건의사항으로 ▲아케이드 설치 착수 ▲주차장 건립 ▲화재안전 추가 지원 등 3건을 제시

했다.

조 회장은 “상동시장은 지난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할 수 있게 됐고, 약 10억 원의 사업비 중 60%인 도비를 지원받았다”라며 “장마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시비가 빨리 교부됐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시장 1층 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화재예방 시설을 보강해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라며 “상인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염 의장은 전통시장이 단순한 판매시설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집적된 지역경제 활성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주차장, 편의시설을 보강해 접근성을 높이고, 마케팅 채널 확대로 방문객을 유치해 활기찬 전통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의회는 시설점검과 정담회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와 부천시 담당부서

와 협의해 상동시장의 안전성과 편의성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영 의원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23년 추경과 24년 본예산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예산을 편성해 안전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날 부천소방서는 염 의장에게 명예 소방서장 임명을 제안하며 각종 시설의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의회가 2016년 제10대 전반기 때부터 꾸준히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이다. 의장이 직접 주요 민생현장을 방문해 민의를 수렴하고 실질적 대책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염 의장은 취임 후 '광주 남한산성 산사태 현장'(22.8.11.)과 'GTX-A 노선 용인역 건설현장'(22.11.6.)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부천 상동시장 점검까지 총 세 차례의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실시했다.

조혜영/기자

# 충남도의회, 충남도·교육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도의원·공인회계사·세무사·예산회계전문가 등 14명 위촉



충남도의회는 13일 도의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충청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지난 2월 21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 3명을 비롯하여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예산회계전문가 4명, 전직공무원 3명 총 14명이 선임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동안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이 집행한 15조원 이상의 2022회계연도 예산(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전반을 검사한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결산검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이 한층 더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대표위원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형식적 결산검사가 아닌 재정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2024년도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2023. 4. 6. (목) ~ 4. 19. (수) 14일간  
 용인특례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라이브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https://council.yongin.go.kr>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 광고에 혁신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해 미래 먹거리 만들겠다”

## 이재준 시장,보스톤 바이오 클러스터 케임브리지 혁신센터 방문

“수원시의 종합병원과 대학교, 바이오기업을 연결해 ‘수원광고 바이오 클러스터’를 ‘보스톤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은 한국의 대표 바이오 클러스터로 키워겠습니다. 바이오 기업과 연구소를 대거 유치하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3일 14시(현지 시각) 보스톤 바이오클러스터(생명공학 협력단지)의 주축인 케임브리지 혁신센터(CIC)에서 열린 ‘수원광고 바이오 클러스터와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앞으로 보스톤 CIC와 수원시가 활발하게 교류해 수원시 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CIC를 견학한 후 CIC에 상주하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의 박순만 미국지사장과 이정국 연구원, 우정훈 BW 바이오메드 대표 등과 간담회를 했다.

보스톤 바이오클러스터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하버드대학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 등이 모여있는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다. 전세계 1000여 개 제약·바이오 기업의 거점으로 2조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바이오클러스터의 중심부에 있는 케임브리지 혁신센터(CIC)는 공유

피스, 공유실험실(Lap Central), 파트너링(Venture Cafe), 전문 컨설팅 지원 조식을 갖췄다.

입주 기업의 산업 분야 비중은 첨단기술, 바이오·의료 분야가 각 1/3, 기업서비스(법률, 회계, 벤처캐피탈 등) 분야가 20%를 차지하고 있다.

CIC는 1999년 원 브로드웨이 센터(One Broadway Center) 내 14층 한 층에서 시작해 현재 총 7층에 걸쳐 20만㎡ 면적으로 확장했다. 현재는 약 700개 기업을 수용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광고 바이오 클러스터가 가진 산학 인프라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설명했다.

박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사장은 “광고에 있는 제약 바이오 회사들과 수원의 종합병원 인프라는 분명 중요한 요소”라며 “바이오산업 발전은 보스톤과 같이 병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원 내 병원들이 발표하는 연구 결과들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희망적인 신호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우정훈 바이오메드 대표는 “바이오는 연구시설만으로 동떨어지기보다 연구인력과 병원 그리고 기업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돼야 하는 산업”이라며 “수원 광고는 이런 측면에서 매력적인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넓은 의미의 바이오가 아닌 특정

바이오 분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종합병원, 대학, 바이오기업이 자연 밀집된 수원시 바이오 생태계는 세계적인 보스톤 바이오클러스터 모델과 유사하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조언을 수원광고 바이오클러스터 조성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 분야 중 헬스케어 분야를 특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사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수원시는 바이오 선도기업·연구기관, 아주대·경기대학교, 아주대 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 등을 연계하는 ‘수원광고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연구소를 유치해 바이오산업을 수원시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6월 중 기업과 병원, 대학, 학회, 협회, 광고테크노벨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시, 경기도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수원광고 바이오클러스터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조혜영/기자

# 용인도시공사 직원 대상 드론 전문인력 교육 실시해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안전 최우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해 4월 13일에서 14일 동안 드론 전문 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한강드론교육원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총 20명의 공사 직원이 참여했으며 항공법규 및 비행 전 점검, 드론 조종 및 실기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향후 드론 조종 자격취득을 독려하고 드론 전문 인력을 늘릴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 최찬용 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드론 등을 활용해 다각면으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한다.”라며 “특히 위험 사각지대



를 사전에 파악해 용인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사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매월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 이민근 안산시장, “신안산선 노선연장 타당성 확보 후 국토부에 적극 건의”

## 이민근 시장, 신안산선 노선 연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 주재

안산시는 14일 안산시 환경교통국 회의실에서 신안산선 노선 연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민근 시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 용역 수행사인 (주)제일엔지니어링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안산선 연장은 이민근 시장의 민선8기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한양대역에서 그랑시티아이 APT단지까지 세계정원경기가든까지 약 3km 구간을 확장하는 계획이다.

사동 지역에 총 7,600세대가 입주한 안산 그랑시티아이 APT 단지는 주변에 89블록 도시개발사업(면적

330,000㎡), 세계정원경기가든 조성(면적 490,859㎡) 등이 추진되고 있어 철도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은 해양과학기술원 부지개발, 2·3토취장 개발, 농어촌공사 도시재생사업 등을 비롯해 안산사이언스밸리(면적 4.41km) 조성 지역으로 첨단 산업단지 활성화와 청년 벤처지원 활성화를 위해 광역교통망이 반드시 확충돼야 한다는 게 안산시의 입장이다.

사업이 현실화 되면 사동권역 주민들과 오는 2026년 조성될 예정인 세계정원경기가든 방문객들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안산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신안산선 노선연장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한 뒤 국토교통부에 연장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신안산선 개통 시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이동시간을 25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신안산선 노선연장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보다 많은 시민이 교통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선 연장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무/기자

# 광명시, 17일부터‘대한민국 안전대전환’집중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추진단 구성해 6월 16일까지 61일간 집중 안전 점검 추진

광명시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관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45개소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은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을 찾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국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안전문화 운동이다.

시는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김규식 광명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괄추진, 합동점검, 홍보기획 등 5개 반으로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건축시설 ▲생활여가 ▲환경 및 에너지 ▲교통시설 ▲건설현장 ▲숙박/의료시설 등 분야를 나누어 건축물, 도로시설, 물류창고, 관광숙박업, 다중이용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등 45곳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대 결함



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보수보강, 사용 제한 및 금지, 철거 등 긴급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가정과 다중이용시설에 자율안전점검표를 배포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집중 안전점검에 참여하도록 하고, 자율방재단 등 단체를 통해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안전점검

기간 중 대상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안전한 광명시를 만들어가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이번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위험 사항은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윤용민/기자

# 안성시, 채움이 아닌 비움에 주목하다

안성시는 2021년부터 도시비우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도시비우기 사업이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 통합, 정비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히 2023년 도시비우기 사업은 공공시설물 주요관리부서(도시개발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의 협업정비로 가시적인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주요도로변 8개의 노선을 지정, 전수조사 후 합동정비 중에 있다.

각 부서에서 관리중인 시설물 중 미정비된 시설물 정비를 기본으로, 기능상실 시설물은 즉시 철거하여 지주형 시설물 최소화시키고, 중복 설치 시설물(이표보 및 교통표지판 등)은 통합하여 보행환경을 개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설치에 필요한 예산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도시비우기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안전한 보행환경까지 확보 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체감효과는 큰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있도

록 최선을 다하여주길 바란다. 시민분들도 사유시설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자제하여 우리의 스스로가 안성시의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시현/기자



### 울진 산불피해 이재민 사랑의 집 짓기로 새 보금자리 마련해

- 한국교회총연합 35억원 모금, 이재민 54가구 사랑의 집짓기 추진  
- 이철우 경북도지사 완공식에서 감사 인사, 입주민 격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4일, 지난해 울진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새 주택을 찾아 사랑의 집짓기를 통해 주택 신축을 지원한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입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국교회)에서는 2022년 3월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발생해 역대 최장인 9일간 계속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거주할 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랑의 집짓기 추진위원회를 발 빠르게 결성해 소속 30여개 교단의 모금을 통해 35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지난해 6월 견본주택 개관 후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해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한 54가구를 최종 선정하고, 총 35억원을 지원해 주택공사를 진행하여 이날 모두 완공하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이영훈 한국교회 대표회장, 류영모 추진위원장, 한국교회 임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집짓기 완공식이 열렸고, 주택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으며 사랑의 집 입주자들은 한국교회의 사랑으로 희망과 용기의 원천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번 사랑의 집짓기는 단순한 집짓기 운동이 아닌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다시 사람이 사는 공간,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지켜 주는 일로 최선을 다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사랑의 집짓기 완공에 대한 도민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한국교회에 전달하고,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용기와 희망을 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빠른 복구와 함께 대형산불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재난극복의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해 1조5천억원 규모의 산림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울진 산불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컨테이너형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어업인,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복구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 의성군, 의성문화원 개관식 개최

김주수 군수, "문화원사 개관이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시금석 될 것" 기대해

의성군은 지난 14일, 의성문화원 신축원사에서 의성문화원 개관식이 김주수 의성군수,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 최태림 도의원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 문화예술단체장, 도내 문화인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의성군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염원이었던 문화원 신축은 2020년부터 총사업비 약 89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4,612㎡에 연면적 2,456㎡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준공되었다. 신축 문화원에는 북카페, 연습실, 교육

실, 회의실, 다목적 강당과 사회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공유사무실 등이 조성되어 있어, 군민 누구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축 문화원 개관으로 주민들의 문화예술 수준향상과 문화향유권 신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원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개관기념 초대전이 열리고 있는데, 의성의 자연을 주제로 한 양정인 작가의 작품(꽃으로 그린 그림)과 의성출신 최중국화가의 수묵으로 그림 풍경

그리고 의성군 제1호 명장 최해원의 분청 도자기 등 개관기념 초대전이 6월 14일까지 진행되며, 또한, 현대서각 및 수석회원들의 작품 전시 등 수준높고 품격있는 의성의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문화원사 개관이 의성의 문화예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예술인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의성 문화예술을 꽃 피워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정금자/기자



### 교량에 부착된 상수도관 일제점검 실시!

- 4.7~4.21일까지 시 전역 교량에 부착된 상수도관 일제 점검 실시  
- 이번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여 안전사고 예방

상수도사업본부는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에 부착된 상수도관 일제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시 전역의 교량에 부착된 상수관로는 86개소로 대형관로(700mm)가 부착된 교량은 아양교 1개소뿐이며, 나머지 85개소는 소구경(13mm)부터 중구경(300mm)의 상수관로가 소규모 교량에 부착돼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년 2회(동·하절기) 교량에 부착된 상수도관을 정기점검 하고 있으며, 4월 7(금)부터 4월 21(금)까지 15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상수도관 변형 및 누수 여부 확인 등 부재의 안전성 점검, 누



수 발생 시 교량에 미치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이다.

김선옥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경과 연수가 오래되어 누수가 우려되는 구간은 우

선 정비하고, 불안정한 관로 및 부재에 대해서는 보수·보강해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디지털 교육을 선도하는 대구 북구

"찾아가는 디지털강사단 정보화교육" 본격 실시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4월부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정보화교육"을 본격 실시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정보화교육'은 최근 신중년 경력직으로 채용된 4명의 강사단이 강북, 강남의 2개 조로 나누어서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을 교육할 예정이며, 또한 거동불능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택방문을 하여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대구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단의 디지털배움터와 상호협력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 신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북구청 정보통신과(☎053-665-2454)에서 접수하고 있다.

또한, 매일 마지막 주 금요일은 키



오스크 현장 체험을 할 예정이며 강사단이 희망자를 인솔하여 북구청 민원실, 홈플러스, 이마트 등을 방문하여 키오스크로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상품구입, 포인트 적립, 주차, 커피 주문 등을 실제로 해 볼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 사업을 통



김동현/기자

### 신계남의 감.쪽 같은 먹.칠 세상'출판기념회 및 전시회

경북 안동출신 現 안동공예사업협동조합과 안동자연염색문화원 고문인 신계남 前 동양대 교수가 오는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안동문화예술평의당 35갤러리에서 출판 기념회 및 전시회를 개최한다.

40여 년 동안 천연염색과 민화, 칠공예 등을 연구해 온 천연염색 연구가이신 신계남(80)

前 동양대 패션경영학과 교수는 자신의 작품세계와 천연염색의 이론과 실기를 집대성한 '신계남의 감·쪽 같은 먹·칠 세상'(도서출판 우즈유키)를 발간했다.

신교수의 세 번째 저서인 이 책은 233쪽 분량으로, 제목 그대로 감무늬염과 쪽무늬염, 먹무늬염 등의 천연염색 기법을 소개하고 있고, 목판칠 작품과 원단칠 작품 등 칠화작품들도 선보이고 있다. 여기에 천연염색의 재료와 전 과정들이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돼 있어 천연염색 실기 지침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특히 부록에는 안동대 응용화학과 임우택 교수가 주사전자연미경과 광학현미경 실험을 통해 규명한 먹염색의 원리가 실려 있다. 이 연구는 먹물이 섬유에 정착하는 원리가 모세관



현상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천연염색한 원단으로 신교수가 직접 제작한 의상과 스카프 작품, 한지염색 작품 등이 사진과 함께 소개돼 있고, '일월오봉도'와 '대형 칠 조각보' 등 신교수가 말년에 새롭게 심취해온 옷칠 작품들도 다수 수록돼 있다. 여기에 저자 소유의 갤러리상정과 동양대학교 전시실에 전시돼 온 작품들도 실려 있어 가히 신교수의 작품세계를 총망라한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출판기념회와 함께 열리는 신교수의 여덟 번째 전시회에서는 저서에서 소개된 다양한 천연염색 작품과

칠화 작품 등 백여 점이 전시되고, '8폭 병풍용 백점도'와 '화훼도', 민화 작품, 넥타이와 솔, 스카프 등도 다수 선보인다.

신교수는 "이번 저서와 전시회는 40년동안 천연염색의 한 길을 걸어온 저의 예술활동과 작품세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총정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가 평생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그 결과물들을 이 책과 전시회를 통해 많은 동호인, 후진들과 공유하고 전수해주는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구미시, 수소버스 보급 확대 논의

수송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 통근버스 및 시내버스 전환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2023. 4. 7.(금) 경상북도와 민간기업인, 운수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관련 기업체 ESG경영('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것) 지원을 위한 수소버스 보급사업 설명, 수소버스 유지관리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고,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소버스를 시승하는 시간도 가졌다.

수소버스는 550km의 장거리 운행이 가능해 전기버스보다 편익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춰 경유버스보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크다. 특히 액화수소로 충전할 경우 15분 이내로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경유버스와 견주어도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적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운수사업자의 건의사항 및 수소소요자를 환경부에 제출해 수소버스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구미시 김동진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버스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수소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 선바위관광지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선바위관광지 늘어, 어린이 물놀이장(971㎡) 조성
- 선바위관광지 효공원, 18m 선바위타워 조성,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



영양군은 지난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도창 군수, 영양군의회 김석현 의장 등 총 4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바위관광지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선바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 관광자원 및 현황 분석, 그리고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석자간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조성된 지 20년이 된 선바위관광지는 지금까지 변화가 없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변신이 필요했다. 이에 용역업체는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관광지 내의 도입시설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연구 용역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선바위관광지 늘어에는 어린이 물놀이장(971㎡)을 조성하여 여름에는 온가족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봄·가을·겨울에는 놀이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선바위관광지 효공원은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높이 18m의 선바위타워를 조성한다. 이 시설에는 5층 높이의 전망대, 어드벤처 체험시설인 대형 슬라이드, 로잉머신·점프프롭 등 4종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체험관을 설치한다.

군은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선바위관광지를 정적인 곳에서 온가족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조성하여 경북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의성군,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참여 기업 모집

김주수 군수, “청년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에 활력 계기 되길”

의성군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023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관내 농식품 제조기업체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특화 작물인 마늘과 대구 수성구의 식품의 식산업의 협력이 기반한 지역 간 상생을 통해 스마트 푸드테크 플랫폼과 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을 계획한다.

지원대상은 사업공고일 현재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의성군인 중소기업으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기업당 연 최대 5천만원까지 컨설팅, 사업화, 고부가가치화 등의 프로그램을 기업의 수요에 맞춰 지원하게 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역 간 상생 사업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기회라는 짝을 틈을 양질의 사업임을 확신하며,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지역간 상생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의성군 마늘산업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정금자/기자

## 경북도, 신규 공중보건 의사 의료취약지 최우선 배치

2023년 공중보건의 수급현황

구분	'23년 배치 (A+D)	증 감 (A=B-C)	'23년 편입			복무만료 및 타도 전출			'22년 배치 (D)
			계(B)	신규	전입	계(C)	복무만료	전출	
계	495	△23	173	168	5	196	182	14	518
의과	250	△37	73	70	3	110	99	11	287
치과	89	7	37	35	2	30	28	2	82
한 의과	156	7	63	63	-	56	55	1	149

###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최소화, 공공 보건의로 지킴이 역할 수행

경북도는 지난 14일, 도청 동락관에서 신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시군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병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등에 배치한다.

경북에서 근무를 희망하고 배정된 신규 공중보건의는 총 168명으로 전문의 25명, 인턴 및 일반의 45명, 치과 35명, 한의과 63명이 3년간 복무하게 된다.

분야별로 지난해 대비 의과가 37명 감소했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7명이 증가해 경북도에는 전체 495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놓여준 의료취약지의 공공 보건의로 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경북도 의과 공중보건의 수는 2014

년 372명에서 2023년 25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난해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통해 사전 대책을 협의했고 미 배치 보건지소 순회 진료, 의료원 행복병원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도서지역인 울릉군에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피부과를 포함한 전문의 9명 등 의과 12명, 치과 1명, 한의과 3명으로 총 16명을 배치해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와 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신규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복무에 관련된 주요사항과 공중보건의사 비위 예방, 비위 사례, 공직가치 등 강화된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17일부터 지역주민

을 위해 근무한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의과 공중보건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경북의 취약한 의료환경에서 공중보건의의료기관의 역할이 더 크게 조명되고 있으며, 의술은 인술(仁術)이라는 마음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울진군, 공공주도 주민참여형 풍력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

### - 손병복 군수, “공공주도형 지역 상생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동참”제안해

울진군은 지난 14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경북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전력기술(주)와 함께 ‘공공주도 지역상생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산불피해지역에 설비용량 4.3MW기준 최대 94기의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체 404MW에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조성할 계획이며, 울진군은 경상북도와 함께 사업대상지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지역상생 개발정책 수립, 주민 수용성 제고 등 행정적인 지원을 수행한다.

특히, 이 풍력발전단지를 주민참여형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추진하여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한다는 방침으로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울진지역 산림대전환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풍력단지와의 함께하는 관광 상품화 개발을 통한 미래 수익구조 창출로 지난해 3월 발생한 울진산불로 인해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울진 경제 재건을 위한 디딤돌을 놓을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탄소제로 시대에 발맞춰 신재생 3.4호기



조기착공, 지난달 후보지로 확정된 도형 지역 상생 풍력발전단지를 조성 계획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원자력수소 국가산단과 함께 공공주 하여 에너지 도시 울진! 건설에 다함

윤근수/기자

## 임종식 경북교육감 2기 소통 나들이 시작!

### 임종식 교육감, “현장 밀착형 방문, 소통으로 적극적 지원방안 마련”해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 11일(화) 울진중학교 방문을 시작으로 2019년 이후 코로나로 3년간 중단되었던 소통 나들이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학교 속으로, 아이들 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하는 이번 소통 나들이는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교육과정 운영 우수 사례를 일반화해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

다.

이번 소통 나들이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학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해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추후 공유된 내용에 관한 결과를 피드백해 학교 지원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창회 등 다양한 교육공동체와의 만남을 통해 진솔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상반기 8개 학교를 대상으로 방문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에는 학교의 부담은 줄이고 소통의 효과는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학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소통 나들이를 통해 “먼저 다가가는 현장 밀착형 방문으로 학교와 소통하고 학교 현장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안동시,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2개소 선정

- 2개의 신규 마을기업에 사업비 1억 원 지원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도산참사랑, 시래기 활용 음식점과 카페, 특산물 판매장 운영
- 꿀벌마을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아카시아 밀원으로 양봉 상품 생산

안동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심사에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도산참사랑’과 ‘꿀벌마을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2개소가 신규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하고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신규 마을기업은 경상북도 중간 심사와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마을기업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사업 기반 구성과 역량 제고를 위해 시설비·운영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각 5천만 원씩 지원받는다.

이번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도산참사랑’은 도산서원·청량산·이육사문학관·안동국제컨벤션센터 등 주변 명소에 대한 높아진 관광수요에 맞춰 지역특산물인 시래기를 이용한 음식점과 카페,



페,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꿀벌마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아카시아 밀원수가 풍부한 와룡면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양봉 상품을 생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두 신규마을기업에 축하와 함께 고용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마을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강원도,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1곳 선정, 국비 20억 확보

## 전국 8곳 중 강원도 1곳 선정(국토교통부)

강원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 속초시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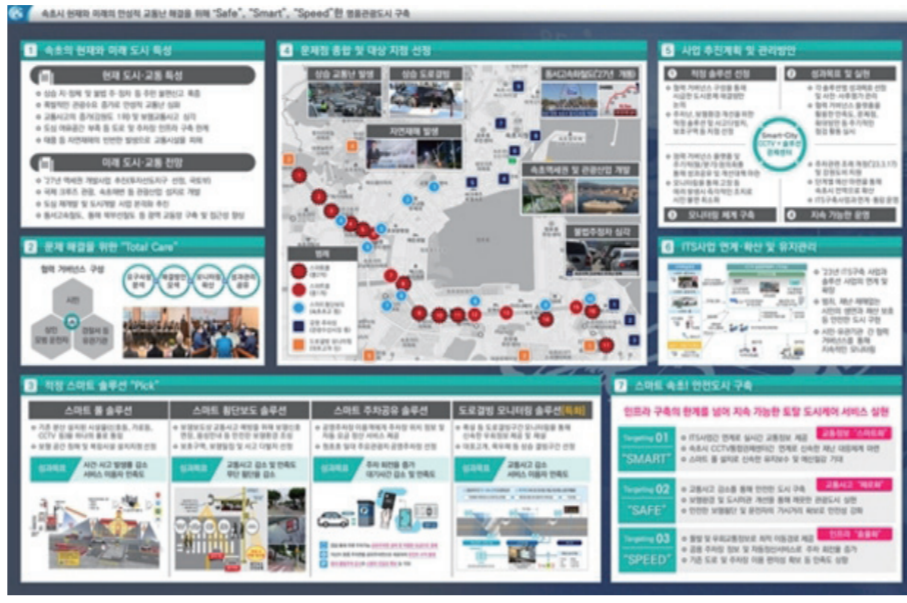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도시 서비스가 부족한 소도시에 교통·안전, 환경·복지에 관련된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 패키지를 보급하여 도시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20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속초시는 이번 사업으로 다른 지자체 보다 높은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솔루션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겨울철 도로 결빙 정보를 운전자, 도로관리청에 신속히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선정된 주요 서비스는 ▶ 기존 분산 설치된 여러 시스템(신호등, 가로등, CCTV 등)을 하나의 스마트 폴(29개소 설치)로 통합하여 보행안전성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 ▶ 교통사고 다

발지점 및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에 보행신호 연장, 음성안내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10개소 구축으로 교통약자 등의 안전한 보행 환경 제공 ▶ 속초관광수산시장, 속초해수욕장 등 주차난이 심각한 관광지 중심으로 스마트 주차공유 솔루션을 도입하여 유희 주차면을 스마트폰 어플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주차 분산 및 주차장 회전을 향상 ▶ 상습 결빙지역인 대포고개, 목우재 등에 도로결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결빙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운전자 및 네비게이션에 정보를 제공하여 우회 경로 제공 및 안전운전 유도도 선제적으로 교통사고 예방 등이다.

강원도 박기동 건설교통국장은 도에서는 그동안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를 준비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의 수준과 실현 가능성을 한층 높인 결과,



▲ 사업구상도

급격한 속초시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9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후 18곳에 국비 446억 원 확보 등 도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스마트시티는 일상생활 속 나타나는 불편한 점을 첨단 기술로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속초시가 겪고 있는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도내 다른 시군까지 확산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 태백시, 산소 도시에서 청정수소 도시로 탈바꿈

태백시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 특구에 지정됐다.

태백시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미이용 산림을 활용한 청정수소 제조산업 활성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백시의 규제자유 특구지정은 지난 3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4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11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에 묶여 시험이 불가능했던 기술 등을 제약 없이 시험·실증·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지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 중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태백시의 동태백로 발전 계획 중 한 부분으로 장성동·동정동·철암동 일원이 포함된다. 참여기업으로는 (주)SK에코플랜트, (주)그린사이언스, (주)제이엔케이이티, (주)제이아이엔지, (주)강원테크노파크 5개 기업이 있으며, 오는 2023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48개월 동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활용 실증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2억 원이다.

세부 실증 사업으로는 △합성가스 정제기술 실증 및 통합설비 연계 연속운전 △ 합성가스 기반 수성가스 전환, 수소분리 정제기술 실증 △청정

수소 생산공정 내 안전성 검증 실증 △수소연료전지 발전 활용 및 수소 품질기준 실증 △ 산악지형의 수소출하 실증 △ 사업화 지원 및 산학연관 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등 총 6개 분야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실증을 통해 일일 수소 700kg을 생산하여 연료전지 및 수소충전소 공급에 활용할 예정이며, 철암동에 건립되어 있는 (주)그린사이언스 철암발전소와 오는 27년까지 총사업비 420억 원이 투입되는 강원남부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업도 추가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규제자유 특구지정으로 인해 2028년까지 10개 기업유치, 450억원 매출 발생, 고용창출 200명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금번 규제자유 특구지정은 장성광업소 폐광에 따른 인구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 등에 대비 강원도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물"이라며, "태백이 청정수소 산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신사업 창출과 기업 유치를 최선으로 다할 것이며, 이번 특구 지정으로 폐광지역인 태백의 자립성장과 나아가 폐사원 수소산업의 진흥, 미래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상근/기자

## 2023 양양군자원봉사릴레이 출발식 개최

양양군자원봉사센터는 4월 14일 10:30,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에서 2023 양양군자원봉사릴레이 출발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출발식은 100여명의 릴레이 참여기관 및 단체장,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년도 결과보고 ▲한정임 양양군자원봉사센터장 인사말 ▲김진하 양양군수 격려사 ▲오세만 양양군의회 의장과 이덕하 강원도자원봉사센터장 축사 ▲자원봉사자 결의문 낭독 ▲릴레이 기수여(도 센터→군 센터) 순으로 진행됐다.

50개 봉사단체에 6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이번 자원봉사릴레이 출발식을 시작으로 4월 29일까지 보름 간 릴레이 기를 전달하며 농촌 일손 돕기, 재가봉사활동, 급식봉사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자원봉사 릴레이가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과 소외된 계층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산불피해 돕고싶다면 강릉으로 여행오세요!

대표 관광지 피해복구에 최선, 관광홍보에 적극 나서

강릉시는 지난 4.11. 산불로 인해 대표 관광지인 경포대 인근에 피해가 발생하자 신속히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관광객 유도를 위한 캠페인 실시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 산불은 경포 주변의 송림과 가로수는 물론 경포해수욕장과 사근진해수욕장 주변의 데크와 화장실, 샤워장, 포토존 등의 시설물에도 피해를 입혔다.

이에 시에서는 해당 시설물 잔해 처리와 더불어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해변정화 활동을 나서고 있으며, 향후 관련부서 협조 하에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 현장을 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관광시즌인 여름 해수욕장 개장 전에 시설물 정비를 마무리하고 그 어느 해보다 알차고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비치 비어 페스티벌, 경포 썸머 페스티벌 등 풍성한 행사를 준비 중이며 감성돔 비치, 애완견 동반 비



치 등 테마 해수욕장도 운영할 예정 이다.

특히, 관광객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강원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산불피해 지역 방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여름관광 시즌에 앞서 수도권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강릉관광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이번 산불로 인한 관광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진행되고 있는 2023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하여 "산불피해지역 강릉, 관광이 최고 의 자원봉사입니다"라는 배너기를 걸고 행사참가자들에게 강릉관광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에도 옥계지역 산불피해 이후 서울에서 관광 캠페인을 전개했고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강릉을 방문하여 실의에 빠진 시민들과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 바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로 인해 강릉여행을 취소하는 분들이 많고 있어 지역경제가 걱정"이라며, "상인들의 일상회복과 산불피해지역을 돕고 싶다면 꼭 강릉을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원주시-NH농협(8개 지역농축협),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체결

원주시와 NH농협은 14일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원주시와 8개 지역 농축협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 적극 동참, ▲특색있고 지역민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답례품 발굴과 개발, ▲대면 접수 시 기부자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8개 농축협 조합장은 "원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우수한 원주 농축산물을 적극 알려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부금 수납을 위한 금융편의 제공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주시 고향사랑기부제가 한발 더 나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농 공동사업 추진으로 도시와 농촌이 행복하게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봄을 만나, 산나물 파티!

제 18회 영양 산나물축제

YEONG 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기간 5월 11일(목)~ 5월 14일(일)

장소 영양읍내 및 일월산 일원

주최 | 영양군 주관 | YFTC 영양축제·관광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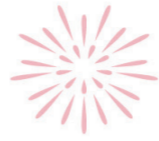








제25회



2023

# 함평

# 나비

# 대축제

땀을 여는 소리, 함평나비대축제  
뚝.뚝.뚝 나비야 일어나! 뚝이야!

4. 28. (금)

5. 07. (일)

10일간

함평엑스포공원 일원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축제관광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 전북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전북도는 고사리, 두릅 등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가 시작됨에 따라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15개반 60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불감시와 병행해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접근이 용이한 지역과 산림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임도나 산림 인접지에 주정차한 개인 차량이나 대형버스가 있는 경우 철저히 조사해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산행 중에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

하지 말고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잦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니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버섯 등 입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남출/기자

### 제주시, 양귀비는 약이 아닌 독입니다!

#### 양귀비 및 대마 불법재배 집중단속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에 맞춰 4월부터 7월 말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꽃봉오리 속의 열매 유액을 말려 가공하면 아편·모르핀·헤로인 등 마약으로 가공돼 약용될 수 있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일체 금지된다.

따라서 제주시는 마을 내 경작지 및 집 뒷마당이나 화단,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 양귀비 및 대마 등 마약류를 밀경작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마약용 양귀비 및 대마(무허가)를 파종하거나 밀매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마약용 양귀비는 줄기와 꽃봉오리 등에 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둥글고 크기가 큰 편이고, 잎은 분을 바른 듯 회청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 반면, 개양귀비는 줄기와 꽃봉오

리 등에 털이 많고 열매는 작고 도토리 모양이다.

유창수 서부보건소장은 "양귀비 및 대마 불법 재배에 대해 사전 홍보와 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으로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서부보건소의 약물관리팀으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곽건기/기자

### 성매매집결지 업주, 파주시청 무단점거 기자회견

#### 성매매집결지 폐쇄 무관용원칙,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업주, 파주시청 무단점거"와 관련해 불법사항에 대해 물러섬없는 무관용원칙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월 11일 12시30분경부터 잠정 5시간에 걸쳐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파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청사에 난입을 시도했다.

이날, 일부 여성들은 여성가족과가 위치한 명성빌딩(환경동) 1층 복도를 무단점거하며 일부여성들은 속옷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시청에 난입, 무단점거 상황을 막는 직원을 밀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시위자들에게 발차 응급실로 실려가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파주시장은 4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집회를 벌인 데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소·고발조치를 할 것이며,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전후로 연풍리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는 무려 70여 년의 동안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지역주민들



의 안전한 생활권을 침해해 왔다.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2004년 제정, 시행된 당시에도 업주들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유예를 주장했고, 2007년, 2008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파주시의 불법건축물 대집행 때에도, 유예기간을 달라고 주장했으며, 이제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계 대책이 없다는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의 주장과는 달리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을 위해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타 시군보다 2배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며, 성매매 업주들에게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성매매 집결지를 하루빨리 폐쇄하겠다고 입장이다.

한영기/기자

### 충북도 공중위생업소(미용업) 기획단속 및 계도 추진

#### 4.17.~4.21. 미용실 점검,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집중 단속

충청북도는 오는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1주일간 도내 공중위생업소(미용업)를 대상으로 불법 유사의료행위 등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행 및 대외활동 증가로 미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블로그 등을 통한 불법행위 광고가 늘어나고 있어 위생관리무 준수 및 불법 유사의료행위 여부 등을 단속(수사)하여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실시

된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영업신고, 변경신고,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여부, 점빼기, 귀볼풀기, 쌍꺼풀수술,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여부, 미용기구 소독 및 위생관리 관리 여부,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금표 및 신고증 게시 여부 등이다.

도는 단속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할 계획이나 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사건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계획이다.

안진석 사회재난과장은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점검 및 불법 유사의료행위 단속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여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대구시, 교량에 부착된 상수도관 일제점검 실시!

#### 4.7.부터 4.21.까지 15일간 시 전역 교량에 부착된 상수도관 일제 점검 실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에 부착된 상수도관 일제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시 전역의 교량에 부착된 상수관로는 86개소로 대형관로(700mm)가 부착된 교량은 아양교 1개소뿐이며, 나머지 85개소는 소구경(13mm)부터 중구경(300mm)의 상수관로가 소규모 교량에 부착돼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년 2회(동·하절기) 교량에 부착된 상수도관을 정기점검 하고 있으며, 4월 7일(금)부터 4월 21일(금)까지 15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상수도관 변형 및 누수 여부 확인 등 부재의 안전성 점검, 누수 발생 시 교량에 미치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이다.



김선욱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경과 연수가 오래되어 누수가 우려되는 구간은 우선 정비하고, 불안정한 관로 및 부재

윤근수/기자

### 중곡동 '카페골목' 개선 위해 민·관·경이 합심... 동(洞)추진협의회 출범

광진구가 중곡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중곡동 '카페골목'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불법 유흥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밀집해 있다. 약 65개의 카페형 일반음식점이 몰린 이곳엔 선정적인 간판과 조명,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성행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상 좋지 않은편이며, 해당 지역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극심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실무분과 T/F팀을 신설해 매주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자 중곡1, 3동으로 구성된 '동(洞)추진협의회'를 위촉했다. 마침내 13일, 중곡1동주민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대대적인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엔 민·관·경이 함께 나서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동추진협의회가 대표로 활동 선서를 낭독하며 지속적인 감시 활동과 개선방안 발굴, 민관 상호 협력, 자율적 합동순찰과 캠페인 등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전개된 캠페인은 카페골목을 걸으면서 진행됐다. 동추진협의회를 비롯해 광진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어울림복지협의회, 광진경찰서 등 100여 명이 "유해업소 OUT"이란 어깨띠를 돌렸다.

손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 우리 모두 함께합시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중곡1동주민센터부터 면목시장 입구까지 약 2km에 이르는 거리를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구는 이날 발대식을 기점으로 유해

환경 개선에 전격 돌입한다. 수시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적발 시엔 단계별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한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운영해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낸다. 업종 전환이나 자진 폐업한 이들에게는 취·창업 교육과 일자리 알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선정적인 조명과 간판은 철거하거나 정비, 어두운 골목길엔 LED 보안등을 설치하고 벽화를 그려 거리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청소년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업소를 근절하고자 민관이 머리를 맞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영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합동 캠페인 실시

#### 청소년 보호 위한 민·관·경 합동 계도 및 점

영천시는 13일 영천경찰서, 영천시교육지원청, 청소년시설 관계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영천위원회 등 20여 명이 참여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민·관·경 합동 점검으로 학교 및 시청 주변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방문해 유해약물(술·담배) 판매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안내문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최근 신·변종 청소년 유해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단체들과 협조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해경 가족행복과장은 "유해환경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소년들을 유해약물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하는 등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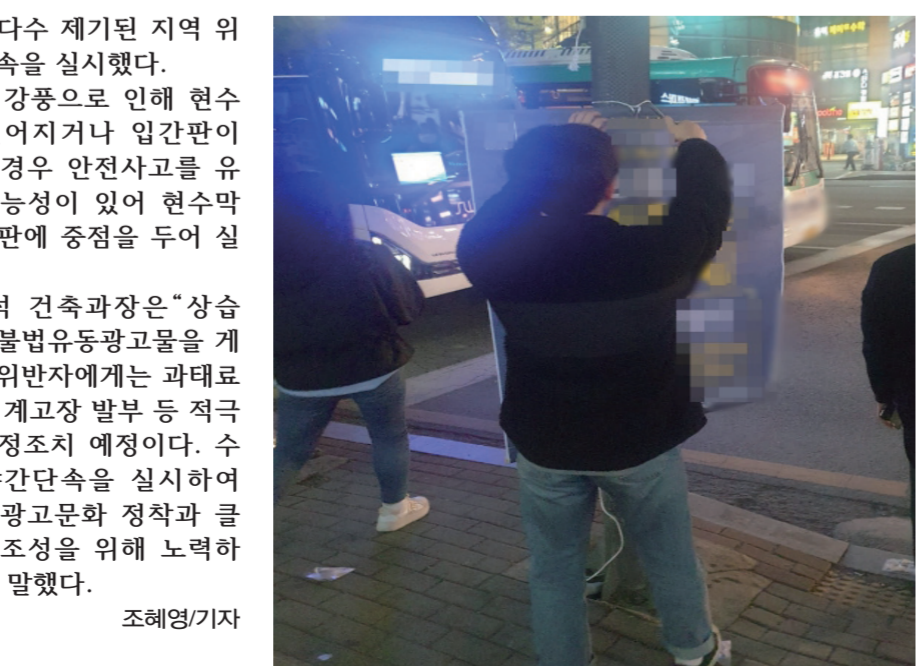
한반식/기자

### 수원시 영통구, 불법 유통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지난 13일, 관계 공무원 및 정비용역반 11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유통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구는 평일과 주말에 지속적으로 불법 유통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으나 최근 용역비가 떨어지거나 입간판이 넘어질 경우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현수막과 입간판에 중점을 두어 실시했다.

서주석 건축과장은 "상습적으 불법유통광고물을 게재하는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계고장 발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 예정이다. 수시로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클린영동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제14회 2023 영주 한국선비 문화축제

## 신바람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

기간 | 2023. 5. 5. (금) - 7. (일)  
장소 |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세상 및 서천둔치 일원

영주시 | 영주시청 | 영주문화재단 | 영주문화관광 | 영주문화재단 | 영주문화재단 | 영주문화재단



도심으로 나온 선비문화축제, 10년 만에 신바람 퍼레이드 선보여

경북도 우수축제 지정...온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형 축제로 구성

'신바람 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 주제로 5월 5일~7일까지 개최

# 새로운 2023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도시 전체가 축제장

경상북도 최북단에 위치한 영주시는 해발 약 200m로 소백산맥이 서남쪽으로 뻗어 주봉인 비로봉(1,439m), 국망봉(1,421m), 연화봉(1,394m)과 죽령을 경계로 도솔봉(1,315m)으로 이어진 소백산 산록 고원부지이다. 동으로는 봉화, 서로는 충청북도 단양군, 남으로는 안동시·예천군, 북으로는 강원도 영월군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소·태백권 교통의 중심도시이다.

이러한 영주시는 내성천이 봉화군을 관류해 문수면 수도리에 이르고, 소백산 주봉과 죽령계곡에서 발원한 남원천과 국망봉에서 발원한 죽계천이 고현동에서 합류돼 서천을 이루어 시가지를 감돌아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곳이다. 대부분이 사질양토로 각종 농산물이 잘 자라며, 특히 북부 산악지대는 사양토이기 때문에 배수가 잘돼 인삼, 사과 등의 생육에 적절한 곳이다.

이 아름다운 역사의 고장이요, '선비의 고장'인 영주시가 봄을 맞아 축제로 들쭉이 있다. 그것은 다음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비정신의 도시인 영주에서 선비들에 의해 생산되고 향유되던 선비문화인 '2023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막을 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는 지난 2008년 제1회 축제를 시작으로 개최됐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4년간 열리지 못하다 이번에 개최되는 축제로 우리 민족의 생활철학이 담긴 유교 문화와 옛 선비 정신과 삶의 풍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로 이뤄진 지역 고유의 문화축제이다.

이에 취재진은 유난히 따뜻한 기온 때문에 예년보다 일찍 꽃들이 만개하면서 봄이 유독 짧게 느껴지고 있는 가운데, 더 늦기 전에 흐드러진 꽃과 선비문화를 즐기며 봄을 만끽해보기 위해 영주시가 2023년 5월 5일(금)부터 7일(일)까지 3일간 영주시 소수서원, 선비촌, 도심일원에서 '신바람 나는 선비의 화려한 외출'이란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2023 영주 한국선비문화 축제'를 집중 취재했다.

이번에 개최되는 축제는 ▲신바람 나는 봄 "신바람 난 선비의 외출", ▲"도시 전체가 축제장으로 변신"을 컨셉으로 하여 펼쳐진다. ▲첫째, 신바람 나는 봄 "신바람 난 선비의 외출" 컨셉이다.

봄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며 생동감을 느끼게 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는 1년 4계절 중 첫 계절이다. 이런 봄의 계절에 자연과 역사와 선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곳 영주에서 2023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를 앞두고 벌써부터 한껏 축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다가오는 5월 5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영주한국선비문화 축제는 영주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는 '신바람 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을 주제로 우리 민족의 생활철학이 담긴 선비정

신과 선비의 삶과 풍류를 체험할 수 있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느낄거리 등 오감만족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둘째, "도시 전체가 축제장으로 변신" 컨셉 등 축제를 개최하는 영주시와 영주문화관광

재단은 올해 축제를 예전 축제와 좀 더 특별하게 준비했다. 특히, 이번 2023영주선비문화 축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하다 4년 만에 진행되는 대면 행사인 만큼 관광객은 물론, 지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편하고 편(Fun)한'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역대축제와 좀더 차별화된 컨셉에 초점을 맞춰 축제를 준비했다. ▶먼저 이번 2023 영주선비 축제에서 가장 큰 변화의 초점은 축제장의 확대다. 그동안의 한국선비문화축제는 소수서원이 자리한 순흥면 일원에서 개최돼 왔지만, 코로나19로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한 모든 분들을 위해 소수서원과 선비촌, 선비세상을 비롯해 특히, 영주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장소인 서천둔치까지 축제의 외연을 활짝 넓혀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느낄거리 등 오감만족을 채울 수 있는 축제를 준비했다는

연, 교지 퍼포먼스 등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조선의 판 랜드'를 선보이며, 자유롭게 먹고 즐길 수 있는 야시장을 운영해 낮부터 밤까지 축제의 흥을 느낄 수 있도록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구성했고,

선비세상일원에서 어린이 장원급제, 발자국 런웨이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축제 기간 동안 입장료 없이 선비세상의 모든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다음으로, 주제공연인 '선비의 하루'를 통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변화된 축제 이미지를 노출하는 주제공연을 준비해 통상 전통문화는 지루한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관람객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현대적인 문화축제가 되도록 준비했다. ▶그리고 사전 불명 프로그램 시행으로 5월 1일부터 이번 선비축제를 널리 사전 홍보하기 위해 주요도시인 서울·부산을 순회하며 반짝 개러라 이벤트를 연출하는 점이 예전과 확연히 차별화된 전략이다.

2023 영주선비문화축제가 펼쳐지는 둘째 날인 6일에는 2013년 마지막으로 선보였던 이번 축제의 하이라라

이트인 신바람 퍼레이드가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이번에 실시되는 퍼레이드는 시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난장 형태로 진행되며, 4월 참가팀을 접수해 다채로운 경연과 퍼포먼스로 2023영주선비문화축제를 더욱 더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또한, 2023 영주선비문화축제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영주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서천 둔치 일원에서 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 폐막식 및 축하공연과 선비야시장, 체험 프로그램이 열리고, 선비촌·소수서원,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일원에서는 마당극, 거리공연, 덴동머미 공연과 야생화, 분재 전시, 한시 백일장, 전국 민속사진촬영대회 등 연계행사가 펼쳐진다.

이와같은 다채로운 컨셉과 치밀한 구성으로 짜여진 이번 2023 영주선비문화축제는 접근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확대해 봄 냄새 물씬 풍기는 영주 도시를 누비며 새로운 추억을 쌓고 생기 넘치는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점쳐져, 벌써부터 이번 축제가 대박성공을 거둘 것이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한 (재)영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억우대표는

"코로나19의 긴 겨울을 이겨내고 따뜻한 계절에 다시한번 관광객과 시민을 맞이할 생각에 설레는 맘으로 축제를 준비 하고 있다. 다가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이곳 영주시로 달려와 신바람난 선비와 함께 추억을 쌓고 생기 넘치는 활력을 가득 충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석사와, 소수서원, 소백산의 청정한 자연과 문화의 고즈넉함이 살아 숨 쉬는 영주시는 선비들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 시는 이러한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선비문화축제를 개최해 선비정신을 재조명하고 현시대에 필요한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인에게 우리의 문화와 선비정신을 알린다는 데서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선비축제를 소개하면서

특히나, "이번 축제를 위해 코로나 19로 4년 만에 전면대면 축제로 개최되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에 부응하기 위해 2023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는 무엇보다 과거와 현대가 소통하고, 세대를 초월해 함께 기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했으며, 전통문화는 지루한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관람객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즐길 수 있는 현대적인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축제는 물론, 5월말 소백산 철쭉제, 7월 말~8월초 여름축제, 10월 외나무다리 축제와 풍기인삼축제, 농특산물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계획돼 있어 이곳 영주를 찾아 오셔서 영주의 다양한 축제와 함께 즐겁고 건강한 추억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새 출발, 따뜻함, 새싹, 벚꽃 등이 어우러지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화사한 계절에 펼쳐지는 봄의 축제인 2023영주선비문화축제!

잘알다시피 아름다운 것은 유난히 짧고 빨리 지나간다. 그러다보니 너무도 아쉬움을 느껴지는 법이다. 아차하면 언제 봄이 지나갔지! 하고 놓치기 십상인 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석사와, 소수서원, 소백산의 청정한 자연과 문화의 고즈넉함이 살아 숨 쉬는 따뜻한 시작을 알려주는 봄! 누군가에게 행복한 추억을 남겨주는 생기 넘치는 봄의 향연인

### 2023영주선비문화축제!

봄 축제가 활짝 펼쳐지는 이곳 영주시에서 불어오는 봄바람과 함께 신바람 난 선비를 만나 보는 '2023영주선비문화축제'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져보며 맘껏 힐링을 느껴 볼 수 있도록 지금 가까운 내 친구, 친지, 연인, 이웃에 2023영주선비문화축제가 가고 한통의 전화나 카톡을 날려 본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윤근수기자ygs1162@naver.com



집이다. 소수서원과 선비촌 일원에서는 선비정신이 숨쉬는 공간으로 이곳의 역사·문화적인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선비 시그널 촌'을 마련, 마당극 '덴동머미'를 비롯, 거리 퍼포먼스, 마당극 등 다채로운 볼거리 프로그램을 대거 선보이고, 관람객 방문이 편한 도심 중심부인 서천둔치 일원에서는 주무대와 4m에 달하는 대형 선비 퍼펫을 연출해 개막식과 축하공







“ SK디앤디가 만드는 가치 있는 세상,  
 “D&D CIT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